

1900년대 외국어 기술 설화집의 지형도 연구

- 다시쓰기를 통해 번역된 한국

황인순*

<차 례>

1. 서론
2. 외국어 설화집의 기술 특질과 분류
3. 외국어 기술 설화의 개별적 성격
4. 외국어 기술 설화 속 이야기 세계 구현: <토끼전>의 다시쓰기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출간된 외국어 기술 설화집을 중심으로 번역의 이중적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야기 속 번역된 한국의 면모를 살피고자 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구비문학 연구를 수행할 때, 그 영역과 방법론을 구체화하는 것은 여전히 주요한 문제이다.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설화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해졌으며 근대 한국어 설화집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연구를 도출해냈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으로 한글과 한문을 제외한 외국어 설화집들이 출간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시기가 가지는 혼종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동시에 영역의 확정과 방법론의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텍스트들을 한국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설화와 구별되는 관점에서 외국어 설화는 다른 언어로 기술된 것이기에 그 기술, 즉 번역의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이중적 번역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중적 번역이란 외국어로 기술된 한국 설화집에서 한국어 텍스트가 외국어로 변환되는 의미적·담화적 이동과 동시에 구비설화 자체가 가지는 정체성에 기반한 보편적 변개의 과정 역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관련 외국어

*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교양대학 조교수

설화집들을 구획할 수 있으며 이는 텍스트의 분류일 뿐 아니라 연구 영역 확장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또한 이 설화집에서 번역은 설화의 다시쓰기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다른 언어를 통해 한국 설화와, 그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1900년대 초의 콘텍스트가 상호조용하는 양상이 설화의 다시쓰기를 통해 드러난다. 가장 많은 설화집에서 선택한 이야기인 토끼전을 중심으로 이야기 세계를 통해 번역된 한국의 면모를 살피고자 한다.

주제어 외국어 설화, 이중적 번역, 설화 다시쓰기, 영문 한국 설화, 프랑스어 한국 설화

1. 서론

본 연구¹⁾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출간된 외국어 기술 설화집을 중심으로 번역의 이중적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야기 속 한국의 면모를 살피고자 한다.²⁾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구비문학 연구를 수행할 때, 그 영역과 방법론을 구체화하는 것은 여전히 주요한 문제이다.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설화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해졌으며 근대 한국어 설화집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연구를 도출해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근대라는 역사문화적 콘텍스트가 가지는 혼종성과 착종성 때문일 것이다. 근대에 출간된 외국어 설화집들은 외국어 번역과 한국문학 이본이라는 이중성 뿐 아니라 문학적 텍스트이면서 역사문화적 콘텍스트와 상호조용하는 문화적 담론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1)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2033372)

2)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의 최종결과물이다. 3년의 연구기간 중 2년 반동안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마음 편히 연구할 수 있도록 도움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인문학연구소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외국어 설화집들이 출간된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어 설화집이 비슷한 시기 연구의 주요한 관심사이기도 했을 만큼 다양한 언어로 기술된 설화집들이 이 시기에 출간되었다. 이는 그 혼중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며 동시에 영역의 확정과 방법론의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한다.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술된 것이기에 그 기술, 즉 번역의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이중적 번역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중적 번역이란 외국어로 기술된 한국 설화집에서 우선 한국어 텍스트가 외국어로 변환되는 의미적·담화적 이동과 동시에 구비설화 자체가 가지는 정체성에 기반한 보편적 변개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근대 외국어 기술 설화집들을 한국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설화집에서 번역은 설화의 다시쓰기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번역이 단순히 언어의 변환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한다면, 이처럼 다른 언어를 통해 완전히 재구된 한국 설화의 세계는 어떤 면모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외국어로 기술된 설화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비교 연구와 개별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의 한국어와 일본어 설화집 연구 역시 관련 연구이지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외국어 설화 관련 연구들로 한정하고자 한다. 외국어 설화들에 대해 소개하고 그 연구의 당위를 제시하는 데에 조희웅의 연구³⁾가 그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기술된 고전 연구에 천착한 연구자들의 기존 논의 역시 적지는 않다.⁴⁾ 개별 텍

3) 조희웅, 「한국설화학사기고 ; 서구어 자료(제1·2기)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5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97~131쪽; 「한국설화학사기고 ; 서구어 자료(제Ⅲ기)를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7, 어문학연구소, 1988, 67~86쪽.

4) 관련 논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연구자로 오윤선과 이상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윤선, 「근대초기 한국설화 영역자들의 번역태도 연구 : Allen, Griffis, Hulbert, Carpenter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3, 건국대학교 동화외번역연구소, 2012,

트에 주목한 연구로는 영어 기술본을 중심으로 알렌⁵⁾, 게일⁶⁾, 그리고 영문 동화를 묶어 수행한⁷⁾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영어가 아닌 연구들은 가린의 『조선 설화』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리텔에 관한 연구⁹⁾와 기타 설화집에 관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관련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

-
- 205~231쪽; 오윤선, 「19세기말 20세기초 영문(英文) 한국설화의 자료적 가치 연구」, 『우리문학연구』 41, 우리문화회, 2014, 145~179쪽; 오윤선, 「영문 한국전래동화의 한국설화 다시쓰기 양상 -〈콩쥐팍쥐 이야기〉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387~420쪽; 이상현, 「문혀진 〈심청전〉 정전화의 계보-알렌(H. N. Allen), 호소이(細井肇), 게일(J. S. Gale) 〈심청전〉 번역본의 연대기」,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405~456쪽; 이상현, 「학대 아동(An Abused Boy)과 ‘폭도’, 홍길동의 두 가지 형상과 〈홍길동전〉 번역의 계보」, 『철학사상문화』 30,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9, 161~187쪽; 이상현·이진숙·장정아, 「〈경판본 흥부전〉의 두 가지 번역지평: 알렌, 쿠랑, 다카하시, 게일의 〈흥부전〉 번역사례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7, 열상고전연구회, 2015, 357~412쪽.
- 5) 서혜은, 「알렌의 경판본 소설의 변안 양상과 그 독자 의식」, 『한국학논집』 8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101~146쪽; 최지희, 「알렌 『토끼전』 영역(英譯) 과정에서 의 번개지점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80, 2017, 421~454쪽.
- 6) 신상필·이상현, 「게일의 『靑坡劇談』 英譯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335~374쪽; 오지석, 「근대전환기 내한 선교사 저술 속에 나타난 한국인식: 힐버트, 게일, 베어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45, 인문사회 21, 2021, 425~438쪽; 최진실, 「결텍스트 분석을 통한 번역가의 번역원리 연구: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6,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8, 207~227쪽.
- 7) 김성철, 「일제 강점기에 영역(英譯)된 한국 동화집 Tales told in Korea의 편찬 경위와 구성의 의미」, 『고전과 해석』 19, 고전한문학연구학회, 2015, 257~284쪽.
- 8) 강재철, 「러시아 N.G. 가린의 개화기 한국설화자료의 수집과 채록방법: 조사자와 제보자 및 후원자에 주안하여」, 『동아시아고대학』 18,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237~284쪽; 안상훈, 「백두산 설화의 전승과 연행양상 -가린-미하일로프스키의 조선 기행문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1, 중앙어문학회, 2015, 251~284쪽; 전성희, 「러시아에서 최초로 번역·출판된 『한국설화』의 성격과 특징」, 『한국민속학』 48, 한국민속학회, 2008, 261~297쪽.
- 9) 김은영, 「서양인이 읽은 조선: 조불조약 체결(1886) 전 프랑스에서 생산된 출판물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99, 한국서양사학회, 2008, 201~237쪽; 신상필, 「파리의방전 교회가 남긴 동서양 문명교류의 흔적 - Grammaire Coréenne(1881) 소재 단행고전 서사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349~380쪽.

고 있으며 자료 탐색의 측면에서 한국 문학 이본으로서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로 이행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외국어 설화라는 다소 광범위한 영역 안에서 다양한 성격을 가진 텍스트들을 모으고 구획하여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외국어 설화집의 기술 특질과 분류

1) 연구대상의 목록과 특질

외국어 기술 설화집¹⁰⁾은 다층적 특질을 가지며 기술의 맥락 역시 균질하지 않다. 따라서 이것을 외국어 기술이라는 다소 넓은 범주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텍스트들의 차이에 집중하여 이를 구획하고 분절한다고 해도 모아 연구하기의 방법과 방향을 살펴보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외국어 설화집은 지금도 발굴되는 경우가 있어, 이후에도 관련 연구를 위한 기반은 보다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어로 기술된 설화집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어’와 ‘번역’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¹¹⁾ 본고에서 다루려는 외국어 설화집의 범주는 -한국어, -일본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어 설화집이 한국 문학 영역의 기본적인 연구대상이라 할 때, 자주 연구되는 외국어 설화집으로 일본어 설화집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1900년대의 일본어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특질은 해당 언어로 기술된 설화집을 독립적으로 연구할만큼 다르므로 이

10) 본고에서는 번역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외국어 설화집들의 다시쓰기 과정을 확장된 번역 혹은 이중적 번역으로 전제하지만, 오해를 막기 위해 이들 설화집들을 통칭할 때는 외국어 기술 설화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자 한다.

11)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들을 통합하는 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 2장의 개념과 논의들은 황인순, 「1900년대 전후 외국어 설화집의 연구 방법론 구축」, 『리터러시 연구』 10(4),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9, 665~702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를 다른 외국어로 기술된 설화집과는 구분하는 것이다. 1900년대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서구 언어로 기술된 텍스트들이 매우 늘어났고, 1900년대의 외국어 설화 기술에는 서구 언어가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외국어 기술 설화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서구 언어로 기술된 한국 설화집을 의미한다. 다만, 외국어 설화집의 경우, 연구대상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으며 연구자의 언어적 한계 또한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모든 언어로 기술된 설화집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텍스트들은 다음과 같다.¹²⁾

번호	저자	제목	연도	기술언어	화자모국어
1	Ridel, Félix-Clair	Grammaire Coréenne	1881	프랑스어	프랑스어
2	Allen, H.N.M.D.	Korean Tales	1889	영어	영어
	Arnous, H.G	Marchen Und Legendes Koreas	1893	독일어	독일어
3	Garin-Mikhailovskii, Nikolai	Koreiskie Skazki	1889	러시아어	러시아어
		Contes Coréens 등 다수			
4	Griffis, William Elliot	Fairy Tales of Old Korea	1911	영어	영어
5	Gale, James Scarth	Korean Folk Tales: Imps, Ghosts, and Fairies	1913	영어	영어
6	Hulbert, Homer B.	Omjee The Wizard-Korean Folk Stories	1925	영어	영어
7	서영해	Miroir, Cause de Malheur!	1934	프랑스어	한국어

첫 번째 리델Ridel의 『한어문법Grammaire Coréenne』(1881)¹³⁾은 파

12) 본고에서는 1930년대까지의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기술된 설화집과 다른 서구 언어로 기술된 설화집을 목록화하였으며 그 목록을 구상하는 데에 조희웅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애초의 논의에서 『고목에 핀 꽃Le Bois sec fleuri』(1895) 등 홍종우의 프랑스어역 고전서사들을 포함하고자 했으나 이것은 소설적 개작이라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최종 연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13) Ridel, Félix-Clair, *Grammaire Coréenne*, 『역대한국문법대계』 2-6, 탑출판사, 1977, 1~196쪽.

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인 리텔 신부가 후배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술한 한국어 학습서이다. 마지막 부분의 읽기자료로 한국의 설화가 22편 가량 수록되어 있다. 한어문전은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문법서이자 학습서이지만, 적지 않은 수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뒷부분을 외국어 기술 설화집의 최초 형태로 지적하기도 한다.¹⁴⁾

알렌Allen의 『한국설화집Korean Tales』¹⁵⁾은 단행본 형태로 출간된 최초의 외국어 기술 설화집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의 출판본인만큼 이후의 다양한 외국어 설화집들, 특히 영문 기술 설화집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다. 특정한 원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경판본을 대상으로 한 번역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¹⁶⁾ 정확히 말하면 설화라기보다는 소설을 대상으로 요약한 영역본 기술이다. 아르노스 Arnous의 『조선의 설화와 전설Marchen Und Legenden Koreas』¹⁷⁾(1893)은 알렌의 책을 독일어로 재번역한 본이다. 저자인 아르노스는 부산 세관에 근무했던 외국인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상의 정확한 신원을 알기가 어렵다고 한다.¹⁸⁾ 그러나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가 이를 독일에서 출판했다는 점은 확인된다.

가린Garin의 『조선설화Koreiskie Skazki』(1889)는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러시아인인 저자가 한국어 통역을 동반하여 한국의 이야기들을 채록

14) “서구에 소개된 최초의 한국 단형고전서사 번역으로 재조명”될 의의를 지적하면서도, 구성적 측면에서는 “한문단편의 주제의식이나 편폭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신상필(2014), 앞의 논문, 364쪽.

15) Allen, H.N.M.D, *Korean Tales*, London: G.P. Putnam's Sons, 1889, 1~193쪽.

16) 오윤선(2014), 앞의 논문, 172쪽; 최지희(2017), 앞의 논문, 421~454쪽.

17) 번역본으로 아르노스, H.G, 송재용·추태화 역, 『조선의 설화와 전설』, 제이앤씨, 2007 참고.

18) H. G. 아르노스, 송재용·추태화 역(2007), 앞의 책, 1쪽.

한 설화집이다. 저자는 러시아 탐험대의 일원으로 조선 북부지역 탐사활동에 참여했고 두만강 일대를 비롯해 의주, 안동을 떠날때까지 일대를 답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설화를 수집했는데, 탐사에 대한 기행문은 『조선, 만주, 랴오둥 반도 기행』이라는 단행본으로 발간되었으며 설화는 『조선 설화』라는 제목으로 따로 출간되었다고 알려진다.¹⁹⁾ 이야기는 총 64개로 이후 에스토니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다.²⁰⁾ 국내 번역본은 김녹양의 번역본과 안상훈의 번역본 두가지²¹⁾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후자를 대상으로 했다.²²⁾ 채록의 형태로 설화를 집성한 것은 최초로, 이후에도 매우 드물며, 민담과 전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피스Griffis의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그리고 다른 한국설화 The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1911)²³⁾는 동화로 개작된 텍스트로 <토끼전>, <홍부전>, <화왕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원전을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그 개작의 정도가 매우 심해 어린이를 위한 동화라

19) 안상훈(2015), 앞의 논문, 252~254쪽.

20) 조희웅은 번역 이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러시아어: Koreiskie Skazki(St. Petersburg, 1904/ Kazaxst 1952/ Moskva,1956/ Moskva, 1966)

에스토니아어: korea Muinasjutud(trans. K. Pinkowski, Reval[Tallinn], 1918)

프랑스어: Contes Coréens (trans., S. Persky. Lausanne, n.d Paris, 1925)

중국어: 朝鮮民間故事 (trans, Liu Hsiao-hui, 上海, 1933)

독일어: Koreanische Märchen (trans. N. V. Kotschubey, Zürich, 1948)

조희웅(1986), 앞의 논문, 110쪽.

21) 미하일로프스키, N.G.가린, 김녹양 역, 『백두산 민담1·2』 창작과 비평사, 1987; 미하일로프스키, N.G.가린, 안상훈 역, 『조선설화』, 한국학술정보, 2006.

22) 김녹양의 번역본은 64편 중 52편이 번역되어 있으며 아동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소의 윤색이 있다. 반면 안상훈의 번역본에는 64편 모두가 실려 있다. 전성희(2008), 앞의 논문, 289쪽.

23) Griffis, William Elliot,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11, 1~155쪽.

는 편찬의 목적을 따르고 있다.

게일Gale의 『한국민담집Korean Folk Tales: Imps, Ghosts, and Fairies』(1913)²⁴⁾은 『천예록』을 중심으로 『청과극담』과 『청구야담』의 일부를 함께 번역한 설화집이다. 게일 역시 선교사 출신으로 설화집 이외에도 다양한 저서들을 편찬하였으며 이 설화집 역시 그 중 하나이다. 번역 원본이 명시된 드문 경우인만큼, 기존의 한국 설화집과의 영향관계를 추론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연구자료이며, 또한 개별 편집자의 선택과 배열 작업 역시 명확하므로 또다른 형태의 독립된 설화 연구자료로도 의미가 있다.

허버트Hulbert의 『마법사 엄지의 한국 민담 Omjee The Wizard-Korean Folk Stories』²⁵⁾(1925) 역시 개작된 동화집이다. 석달이 soktary라는 어린이가 산에서 ‘엄지’란 노인을 발견하고 그 노인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는 일종의 액자형 구조로, 석달이와 그 친구들이 마법사 엄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수록했다.

『거울, 불행의 원인Miroir, Cause de Malheur!』(1934)²⁶⁾은 한국인인 저자 서영해가 프랑스 망명 중 프랑스어로 한국의 설화들을 기술하여 출판한 것이다. 이러한 특질이 다른 설화집과 다르므로 한국 설화집과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²⁷⁾ 상호 영향관계의 지표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체적으

24) Gale, James Scarth, *Korean Folk Tales: Imps, Ghosts, and Fairies*, London, New York : J.M. Dent & sons. E.P. Dutton, 1913, 1~288쪽.

25) Hulbert, Homer B., *Omjee The Wizard-Korean Folk Stories*, Springfield, Mass: Milton Bradley Co. 1925(연구에는 Hulbert, Homer B., *Omjee The wizard: Korean folk stories*, 근세 동아시아 서양어 자료총서 45, 경인문화사, 2000판 사용) 번역본으로 이현표 역, 『마법사 엄지-한국 최초의 영어 교사 호머 허버트가 들려주는 한국 옛날 이야기』, KORUS, 2011을 대조하였으나 논문 내 번역은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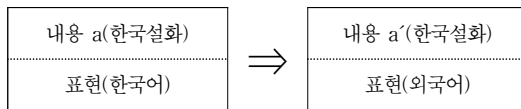
26) So yong-hae, *Mirior, cause de malheur!*, 새문사, 1977, 1~214쪽.

27) 황인순, 「서영해 설화집 『거울, 불행의 원인』의 서사적 특질 연구」,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321~360쪽.

로 영향을 받은 설화집을 지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동시대 설화집들과의 공집합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는 설화집이다.

2) 외국어 기술 설화에서 번역의 함의

외국어 기술이라는 특질을 제외한다면, 설화 연구에서 변이양상을 살피는 것은 주요한 연구 요소이다. 외국어 설화집은 이러한 변개나 변전이 번역과 더불어 일어난다는 특질을 가진다. 예를 들어 외국어로 기술된 한국 설화가 있다고 하면, 이 변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때 변형되는 내용 a'는 외국어 번역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공백과 더불어 외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하는 저자의 태도, 개연적 이야기에 대한 저자의 관점, 문화적 이해의 오류, 분량의 조절 등을 이유로 하여 변형되는 것이다. 특히 설화에서는 변개의 과정을 짚어보거나 이본의 양상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변전이 외국어 번역과 더불어 나타나며 그 이음새를 정확히 분절해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외국어 설화는 결국 어떠한 경우든 이중의 번역 체계 내에 있다. 채록과정, 공통기역의 형성 과정, 혹은 원전을 참고하는 과정에서의 한국어 매개 변형이 이루어지며 기술과정에서의 타언어 매개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²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전적 성격을 가진 야담이나 민담이 근대화 혹은 현대화되기도 한다. 이 모든 변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표현의 측면인 외국어와 내용의 측면인 한국설화 중 단순히 어느 한 부분에

28) 황인순(2019-b), 앞의 논문, 673~4쪽.

방점을 찍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는 이 텍스트들을 단순한 외국어 기술물이 아니라 다양한 콘텍스트에서의 한국문학 변형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고려할 것은 번역의 구조와 그 방향성이다. 한국문학 텍스트(내용)를 저자의 모국어로 옮긴 설화집은 서영해를 제외한 모든 설화집이다. 서영해 본은 한국문학 텍스트를 저자의 비모국어로 옮긴 것이다. 언어의 방향성은 담론의 방향성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모국어로 시작했는가 모국어로 도달했는가의 문제는 저자의 정체성과 관련되며, 그것은 결국 대상을 인지하는 시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외국 선교사가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 도착하여 낯선 이야기를 듣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소개하는 것과, 한국인이 다른 곳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언어로 한국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설화 변개의 방향 역시 그 시선에 영향받게 된다. 연구대상 중 유일하게 한국어 화자가 기술한 것이 서영해의 텍스트인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전체에서 이 텍스트가 가지는 불균질성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다. 그것은 외국어 기술 설화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번역의 태도와 더불어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²⁹⁾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자 개개의 정체성과 쓰기의 맥락이 그들이 한국 혹은 조선이라는 좀 더 넓은 담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드러내며 이와 같은 번역의 방향과 태도는 이야기 세계의 실질적 구현을 좌우한다. 반면 이야기의 선택은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이야기, 설화, 구술성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관련된다. 주로 서문에서 어떻게 이야기 혹은 설화의 개념을 기술하는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 원천은 크게는 소설류를 주로 사용한 것과

29) 내적 세계란 자신이 인식적으로 속해 있다고 느끼는 세계이며 외적 세계란 그 반대이다. 모국어 정체성 혹은 민족 공동체 정체성이 반드시 내적세계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본고에서 다른 저자들은 이것이 모두 일치하는 편이었다.

야담 및 민담을 포괄하는 설화류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³⁰⁾ 첫 번째는 소설을 근간으로 한 텍스트들로, 대부분 판소리계 소설을 선택 하나 판소리적 특질이나 극적 특질을 살려 번역하기보다는 이야기의 서사 단락을 요약적으로 변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소설들이 소설novel 이란 장르보다는 이야기tale의 맥락으로 인식된 것이다. 한국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되 문명화된 양상 역시 기술하고자 했던 계일의 텍스트가 소설 원천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토끼전>, <심청전>, <홍부전> 등이 가장 많이 확인되는 이야기들이다. 채록 중심의 가린 본에도 <심청전>을 포함하는 판소리계 소설 원천의 이야기가 실려 있을 정도이나 소설 원천이 단 하나도 수록되지 않은 것은 리텔의 텍스트가 유일하다.

두 번째는 실제 야담집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을 선택하거나, 민담으로 전승되는 이야기를 수록한 것이다. 이 경우는 야담이 수재된 문헌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이야기의 유형은 명확하나 이본의 출처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 그리고 민담류임은 확인할 수 있지만 기존에 소개된 한국설화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일의 번역은 명확히 『천예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서영해의 설화집에는 『청구야담』 등과 그 흐름이 거의 유사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으나 전체가 『청구야담』을 저본으로 했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그리피스와 단군 이야기는 단군신화를 수재한 것이나 어떤 문헌을 참고했는지 추정하기는 어렵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류 역시 자주 확인되는 이야기 유형이나 같은 유형이라는 것만 확인가능할 뿐 개별의 저본은 확인하기 어렵다.

외국어 설화들의 원천은 소설, 구술 민담, 문헌 설화 등 다양한 영역들을

30)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문헌과 구술 전승으로 나누고자 했으나 수정하였다. 특히 야담은 종종 구술과 구분되는 문헌 전승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외국어 다시 쓰기에서는 설화적 원천을 가진 이야기들이 문헌과 구술로 완전히 구획되지 않아 소설/야담 및 민담 원천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황인순(2019-b), 앞의 논문, 684~694쪽.

로 하는 텍스트로 나누어 보았다. 가린의 설화집은 다른 한국 설화 전승에 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지만 구술로 전승된 이야기를 기록했으므로 설화기반으로 분류했다. 가로 축은 개작의 정도에 따른다. 번역 원전이 있는 계열의 텍스트는 변형의 정도가 가장 적고, 채록한 내용을 번역자를 통해 옮겼다고 한 가린의 텍스트가 그 다음이다. 경판본 소설을 대상으로 했으나 서사단락을 요약적으로 다시쓰기한 알렌의 텍스트와 일부의 원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 설화집과의 상호관계도 확인가능하지만 특정 원전을 추측하기 어려운 서영해의 텍스트는 변개의 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알렌의 경우 전체가 경판본이라는 단일한 원전을 염두에 두고 기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앞쪽에 두었다. 어떠한 이야기를 썼는지는 추측할 수 있지만 동화 쓰기의 목적이 커 개작의 정도가 큰 헐버트와 그리피스스의 텍스트는 마지막에 두었다. 물론 이러한 표는 전체의 텍스트들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임의로 구획한 것으로 그 안에서 구체적인 텍스트의 특질을 확인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예를 들어 서영해의 텍스트만이 비모국어 화자에 의해 기술되었으나 이를 따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표는 이러한 구획에 따라 텍스트들이 나름의 영역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외국어 설화 연구의 확장 방향성을 암시하는 일종의 지형도를 시도해 본 것이다. 또한 차후의 외국어 기술 설화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외국어 기술 설화의 개별적 성격

이 장에서는 앞선 분류에 따라 개별 텍스트들의 면모를 살피도록 한다. 설화집의 전반적인 특색을 살피고 서문을 통해 제시한 설화의 개념을 토대로 어떠한 이야기들을 선택하였으며 어떠한 개작의 방향을 탐색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각각의 설화집들이 첫 번째 이야기들로 수록한 이야기이다. 게일은 〈자란〉을, 가린과 알렌은 〈토끼전〉의 변형을, 리델은 민담 〈불타는 담배〉를, 서영해는 〈거울, 불행의 원인〉을, 그리피스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를, 힐버트는 구조상 정확히 말하기가 어려우나 실질적으로는 역시 〈토끼전〉의 변형을 첫 번째로 두었다. 이처럼 살펴본 구조와 시선이외에도 설화집들의 정체성을 함축하는 요소들이 설화집에 존재한다.

1) 『천예록』을 중심으로 한 한국기이설화의 영어 이본
: 게일의 『한국민담집 Korean Folk Tales: Imps, Ghosts,
and Fairies』(1913)

게일의 설화집은 총 53편 중 『천예록』 37편, 『청파극담』 13편, 『청구야담』 3편을 수록했다.³¹⁾ 특정 설화집을 대상으로 한 번역이 확인되는 외국어 기술본은 게일의 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게일의 텍스트는 번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피고 그 이음새를 통해 저자의 관점을 추측하기에 가장 용이하다. 또한 외국어 기술 설화를 어떻게 한국 문학 영역에서 논의해야 하는지를 물을 때, 한국 문학적 연속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가지는 텍스트 중 하나이다.³²⁾

31) 서문에서 게일은 임방의 원고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룩이 쓴 13개의 이야기, 그리고 출처불명의 3개의 이야기를 수록했다고 기술한다. 이는 임방의 『천예록』과 이룩의 『청파극담』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출처를 모른다는 나머지 3개의 이야기는 『청구야담』을 원본으로 한 것이다. (An old manuscript copy of Im Bang's stories came into the hands of the translator a year ago...The thirteen short stories by Yi Ryuk are taken from a reprint of old Korean writings issued last year (1911), by a Japanese publishing company. Three anonymous stories are also added, "The Geo mancer," to show how Mother Earth has given anxiety to her chicks of children;"Im, the Hunter," to tell of the actualities that exist in the upper air; and "The Man who lost his Legs," ass sample of Korea's Sinbad) Gale, op.cit., vii-viii쪽.

『한국 민담집』이라는 제목과 『도깨비, 귀신, 그리고 요정들 Korean Folk Tales: Imps, Ghosts, and Fairies』이란 부제는 주로 신이한 이야기들을 다룬 『천예록』과 관련된 제목으로 보이지만 다른 원천에서 수집한 이야기들 역시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다. 이러한 선택은 동양인, 즉 한국인들의 내면적인 성찰이나 영적인 태도를 이해하는 데에 이야기들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문에서 “동양인의 내적 영혼을 탐색하고 그들의 삶 속 고유한 영적 존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음의 이야기들은 진정한 해석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극동의 세가지 위대한 종교인 도교, 불교, 유교로부터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중략)실제로 그중 일부는 매우 섬뜩하고 보기 힘든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저자 임방 자신을 포함하여 과거 여러 세대의 한국인들이 살아온 상황들을 충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³³⁾라고 한 것은 삶과 가치관의 반영으로서 이야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는 기이한 이야기들을 통해 동양 정신의 작동을 이해하고 삶의 복잡다단한 측면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 개념화한다. 환상성을 가진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은 인간의 관념과 가치관, 삶의 문제들을 표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천예록』이 가장 주가 되는 번역 대상이므로 이와 제일의 번역본을 비

32) 정용수는 『천예록』의 이본 중 하나로 제일의 이 설화집을 들어 연구의 당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용수, 「『천예록』 이본자료들의 성격과 회수 문제」, 한문학보 7, 우리한문학회, 2002, 129~165쪽.

33) To any one who would like to look somewhat into the inner soul of the Oriental, and see the peculiar spiritual existences among which he lives, the following stories will serve as true interpreters, born as they are of the three great religions of the Far East, Taoism, Buddhism and Confucianism...Very gruesome indeed, and unlovely, some of them are, but they picture faithfully the conditions under which Im Bang himself, and many past generations of Koreans, have lived.

Gale, op.cit., vii쪽.

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구성상의 변화는 이야기 배열과 후미평문의 수정이다.³⁴⁾ 『천예록』은 2편의 이야기가 묶여 한번의 후미 평문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데³⁵⁾, 게일은 이것을 풀어 나름의 목차로 재구성한다. 2편씩의 이야기가 묶인 기존의 구성은 완전히 해체된 셈이다. 목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환상적인 이야기를 선택하는 경향은 유지되므로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단순히 합리적으로 개작하려는 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란>을 맨 앞에 두면서 동양의 사랑 이야기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방식은, 앞으로 나올 기이한 이야기들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조금 뒤로 미루고자 하는 의도로 추측할 수도 있다.

재배열 과정에서 해석이 개입되는 구성은 유지되나 게일 자신의 의견과 해석을 직접 기술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수정 번역한다. 사실, 후미 평문이 이야기에 대한 저자의 직접적 해석이라면, 그것은 번역자인 게일의 해석은 아니므로 수정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럽기도 하다. 실존 인물 중심 이야기의 경우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많고, 도교 등 동양적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며³⁶⁾, 『천예록』 원본에서처럼 직접적인 감상을 제시하기도 한다.³⁷⁾ 그러므로 이 설화집은 고전 번역의 문제를 다루는 데

34) 한글 번역본은 김동욱·최상은 역, 『천예록』, 명문당, 2003을 참조하였다.

35) 정용수(2002), 앞의 논문, 135~137쪽.

36) “대부분의 인물 소개는 국조인물지를 참조하였다(The biographical notes that accompany the stories are taken very largely from the Kak-cho In-mul-chi, “Korea’s Record of Famous Men.(viii)”)”고 하였다. <장도령 이야기>에서는 도교의 개념을 설명하며 “도교는 조선의 가장 주요한 종교로 그 사상의 핵심은 수신연성이라는 문장을 통해 설명된다. 이것은 마음을 닦고 본성을 단련하는 것이다...(중략)(Taoism has been one of the great religions of Korea. Its main thought is expressed in the phrase su-sim yon-song, “to correct the mind and reform the nature”)”고 한다.

Gale, op.cit., 18쪽.

37) <자란>의 도입부에서 게일은 “어떤 이들은 굳건하고 진정한, 희생적인 사랑이 동양에서 찾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400년도 전부터 전해온 자란의 이야기에서 그 반대라

에 가장 유효한 텍스트이며, 한국적 환상성이 서구에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번호	Korean Folk Tales: Imps, Ghosts, and Fairies	번호	원전
1	자란 Charan	17	掃雪因窺玉蕭仙
2	장도령 이야기 The Story Of Chang To-Ryong	1	智異山路迷逢眞
3	여우 이야기 A Story Of The Fox	47	背負妖狐惜見放
4	예언가 정복창 Cheung Puk-Chang, The Seer	3	鄭北窓遠見奴面
5	마법사 윤세평 Yun Se-Pyong, The Wizard	4	尹世平遙哭妹喪
6	살궐이 부인 The Wild-Cat woman	48	手執怪狸恨開握
7	불운한 중 The Ill-Fated Priest	51	泰仁路鎬射簪僧
8	도인의 선견지명 The Vision Of The Holy Man	9	土亭漁村免海溢
9	신장의 방문 The Visit Of The Man Of God	10	樵氓海山脫水災
10	임실의 선비 The Literary Man Of Imsil	14	任實士人領二卒
11	강화의 무인 The Soldier Of Kang-Wha	15	一鳥魚肉臥家中
12	구렁이의 저주 Cursed by the snake	39	故相第蛇魂作禍
13	길위의 선비 The Man On The Road	16	萬騎蹣跚坐路上
14	물고기가 된 노인 The Old Man Who Became A Fish	19	高城鄉叟病化魚
15	풍수를 보는 사람 The geomancer		李措大學覘訪地師(청구)
16	돼지가 된 남자 The Man Who Became A Pig	20	昇平族人老作豬

는 것이 입증된다. 이 이야기는 지난날의 로맨스지만 여전히 신선하고 달콤한 정취를 풍기기 때문이다. 비록 그 동양적 설정 중 이상하고 특이한 점은 있지만.”(SOME think that love, strong, true, and ah, sacrificing, is not to be found in the Orient; but the story of Charan, which comes down four hundre years and more, proves the contrary, for it still has the fresh, sweet flavour of a romance of yesterday; albeit the setting of the East provides an odd and interesting background)이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옥소선(자란)과 일타홍의 이야기에서 “평하건대, 부인의 절개와 지조라는 것은 대개 신분의 귀천과는 관계없으니 창기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다. 그런데 옥소선만은 비록 한번 몸을 버리는 것은 면치 못하였으나, 니중의 절개는 궤이하고 기이하여 건국부인과 동류라 할 만하다. 일타홍은 처음부터 끝까지 몸을 버리지 않았고, 일을 헤아림이 마치 신과 같이 구래공의 첩인 천도보다 나왔다. 두 여인에 관한 일이 이처럼 많은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두루 갖추어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다.”는 평문과 완전히 대립하는 것은 아니나 다소 다른 내용이다. Gale, ibid, 1쪽; 김동욱·최상은 역(2003), 앞의 책, 121~122쪽.

17	악귀가 된 할멈 The Old Woman Who Became A Goblin	35	士人家老嫗作魔
18	은혜깊은 귀신 The Grateful Ghost	11	臨場屋枯骸冥報
19	용기있는 아가씨 The Plucky Maiden	59	刀代珠扇爲正室
20	지혜로운 부인 The Resourceful Wife	60	腋挾腐肉得完節
21	퀘에 갇힌 벼슬아치 The Boxed-Up Governor	22	提督裸裎出橫中
22	다리를 잃은 남자 The man who lost his legs		大人島商客逃殘命(청구)
23	만명의 악귀 Ten Thousand Devils	13	西平鄉族點萬名
24	신선의 집 The Home Of The Fairies	2	關東道遭雨登仙
25	정직한 무당 The Honest Witch	49	廣寒樓靈巫惑倖
26	왕에게 선택받은 사람 Whom The King Honours	61	獨守空齋擢上第
27	우씨의 행운 The Fortunes Of Yoo	62	妄入內苑陞顯官
28	도깨비와의 만남 An Encounter With A Hobgoblin	38	崔僉使僑翁逢魔
29	구렁이의 복수 The Snake's Revenge	40	武人家蟒妖化子
30	용감한 사또 The Brave Magistrate	55	關北倖劍擊梟管
31	관왕신을 위한 사당The Temple To The God Of War	57	送使宰臣定廟基
32	죽은이의 방문 A Visit From The Shades	50	龍江山神祀感子
33	겁 없는 장군 The Fearless Captain	56	別害鎮拳逐三鬼
34	염라대왕 The King Of Yom-Na(Hell)	7	閻羅王托求新袍
35	홍씨의 황천행 Hong's Experiences In Hades	8	菩薩佛放觀幽獄
36	귀신이 나오는 집 Haunted Houses	37	李秀才借宅見怪
37	사냥꾼 임씨 Im, The Hunter		林將軍山中遇綠林(청구)
38	도술을 사용한 서울 침략 The Magic Invasion Of Seoul	58	見夢士人除妖賊
39	무시무시한 아기 도깨비(두억시니)The Awful Little Goblin	36	一門寡頑童爲穢
40	신의 방법 GOD's way		청과극담
41	꿈 속의 노인 The old man in the dream		청과극담
42	완벽한 승려 The perfect priest		청과극담
43	길조 까치 The propitious magpie		청과극담
44	고불(古佛) The 'old buddha'		청과극담
45	위대한 약 A wonderful medicine		청과극담
46	충직한 모씨(某氏) Faithful mo		청과극담
47	유명한 맹사성 The renowned maing		청과극담
48	오감 The senses		청과극담
49	신과 왕, 누가 결정하는가 Who decides, god or the king?		청과극담
50	가장 중요한 세가지 것 Three things mastered		청과극담

51	기묘한 죽음 Strangely stricken dead		청과극담
52	신비로운 회나무 The mysterious hoi tree		청과극담 ³⁸⁾
53	일타홍Tahong	18	簪桂重逢一朵紅

2) 한반도 북쪽의 채록 설화

: 가린의 『조선설화Koreiskie Skazki』(1889)

가린의 설화집은 외국어 설화집 중 유일하게 한국의 설화들을 직접 채록하여 기록했다는 점에서 다른 설화집과는 가장 구별된다. 저자가 탐사 활동 중 한반도 북쪽의 이야기들을 채록했다는 측면에서 자료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재번역되어 다른 나라에 한국의 설화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이야기 목록은 다음과 같다. 목차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토끼전>의 개작으로, 다소 낯선 이야기들이 수록된 가린의 설화집 안에서 비교적 익숙한 이야기이다.

번호	제목	번호	제목
1	토끼	33	양과 도리씨
2	삼형제	34	고양이들
3	팔자가 사나운 사람	35	소처럼 우직한 노력
4	강태공의 돌무더기	36	월매
5	어느 화가	37	복된 명당자리
6	박 씨	38	두꺼비 집
7	선량한 아내	39	이무에이
8	무엇이든 알아맞히는 재주가 있는 사람	40	김씨
9	연꽃(제비꽃 연못)	41	구렁이
10	차복이	42	자식의 효성
11	알았어요!	43	아버지의 권리

38) 『청과극담』은 이어진 하나의 글 형태로, 단락별로 다른 이야기가 수록되어 순서를 구분할 수 있지만 몇 번째 이야기인지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단락을 구분하여 번역본과 연결한 자료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신상필·이상현(2013), 앞의 논문, 340쪽.

12	두 명의 애국자	44	뱃사공
13	천상의 여인	45	돌에서 나온 술
14	점잖은 남편	46	새의 말
15	호랑이 사냥꾼들	47	무가치한 친구
16	적자와 서자	48	고아들
17	정조가 있는 아내	49	재판관
18	여인의 호기심	50	장수
19	장별	51	사랑
20	명궁수	52	두 개의 돌
21	공자	53	지네의 아들
22	이씨 왕조	54	심청
23	조선을 통치하고 있는 왕조에 관한 두 번째 전설	55	정직한 사람
24	수달에 관한 전설	56	유삼
25	현명한 사람	57	가문의 복수
26	이익이 되는 유리한 거래	58	장례
27	황구	59	언제부터 조선에 세모시가 등장했는가
28	열세살의 꼬마 신랑	60	구렁이
29	쥐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노인을 죽이지 않게 되었는가(중국민담)	61	하인의 아내
30	양지네 이야기	62	언제부터 조선의 여인들은 폐쇄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가?
31	또다른 지네 이야기	63	고씨와 길레
32	아저씨	64	맹세의 서약

조선 설화는 채록 원본을 대상으로 번역한 텍스트이나 그 원본이 되는 실제 채록본을 확인할 수는 없다. 추정이 어려운 고유명사가 제시되기도 하고, <토끼전>을 기술한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흥건적이 등장하는 등 변개의 양상이 고유해서, 저자가 겪은 채록의 상황들이 다소 거칠게 반영되기도 한다. 가린은 서문에서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채록을 번역했다고 기술하지만³⁹⁾ 이러한 고유한 변개가 “어떤 특정 원전을 기반으로 한 전송과

39) 서문에서 가린은 “우리의 통역을 맡은 ‘김씨’라는 조선인은 전문 통역관으로 러시아 어와 조선어를 유창하게 구상했다. 나는 조선설화들이 지닌 다채로움을 보존하려고

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구비전승의 과정에서 구술자에 의해 변형된 이본을 번역한 것인지, 혹은 전승과 기술의 과정에서 조금씩 틀어짐이 나타난 것이 누적적으로 기록된 것인지, 저자의 재해석이나 오역에 기반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⁴⁰⁾다.

실제로 가린의 기행문을 토대로 추정된 다시쓰기의 프레임과 관련해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견과 그러한 이분법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의견이 나누어진다.⁴¹⁾ 그런데 실제 기술을 통해 그 태도를 추론한다면, 꽤 현실적이고 적지않게 냉소적이라는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 <토끼전> 뿐 아니라 <춘향전>을 개작한 <사랑>에서도 이도령의 아버지가 “극단적으로 수탈을 일삼았다”고 쓰며 칼집을 맞춰 보아 범인을 찾아내는 설화(재판관)의 서두에서는 “관리를 지금처럼 돈으로 사고팔지 않고”라고 쓴다.⁴²⁾ 이것은 채록 지역 전승 집단의 일관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서문을 참고하면 가린 역시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노력했고 전혀 가필을 하지 않으면서 통역관이 하는 말을 신속하게 받아 적었다”고 이야기한다.

안상훈 역(2006), 앞의 책, 서문.

40) 황인순(2019-b), 앞의 논문, 675쪽.

41) 설화 채록의 과정이 기술된 『조선, 만주, 라오동 반도 기행』에 대한 연구에서 박노자는 이 글이 조선인을 미발달한 존재로 파악하였기에 전설을 수집한 것이라고 하며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의 한계를 지적한다. 반면 이희수나 홍순애 등의 연구에서는 가린의 여행기가 당시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 기반한 글들과는 다른 성격으로 조선에 대한 연민을 가진다고 기술한다.

박노자, 「착한 천성의 아이와 같은 저들」, 『대동문화연구』 56,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6, 157~163쪽; 이희수, 「1895~1898년 한국방문기를 통해서 본 러시아의 한국 인식」, 『사림』 35, 수선사학회, 2010, 85~112쪽; 홍순애, 「근대개몽기 외국인 여행서사의 표상체계와 문화상대주의 - 러시아 가린 - 미하일롭스키의 『한국, 만주, 라오동반도 기행』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4, 한민족문화학회, 2010, 107~137쪽.

안상훈(2015), 앞의 논문, 256~258쪽 재인용.

42) 안상훈 역(2006), 앞의 책, 201~7쪽.

다.⁴³⁾ 가린의 설화집은 그러므로 누락된 한반도 북쪽의 구술 자료들을 보완하는 자료로서 기능하며, 비-선교사적, 비-영어적 관점에서의 한국설화 읽기 연구의 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한국설화의 재번역이라는 관점에서는 번역 원전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3) 경판본 판소리계 소설을 중심으로 하는 설화적 다시쓰기

: 알렌의 『한국설화집Korean Tales』(1889)

설화집의 서문에서 알렌은 “한국인이 반-야만적인 민족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다소 퍼져 있는데 이 책을 쓴 목적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한국 구술 설화 속에 그려진 그들 민족의 생각, 삶, 그리고 습속 등을 보여주는 것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번역했다. 번역된 이야기들은 특별하게 선택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포괄하고자 선택된 것⁴⁴⁾”이라 기술한다. native lore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알렌에게 한국의 이야기들은 민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구술성은 민속성과 집단성

43) “조선인들은 ‘겁쟁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흰색 옷과 그들의 소심함 때문에 조선인들을 ‘하얀 백조’라고 부른다. 그렇다. 조선인들은 백조처럼 싸울 줄도 모르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줄도 모른다...(중략)아! 자신의 옛날이야기의 시간에서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불가사의한 것인가!”

안상훈 역(2006), 위의 책, 서문.

44) My object in writing this book was to correct the erroneous impressions I have found somewhat prevalent—that the Koreans were a semi-savage people. And believing that the object could be accomplished best in displaying the thought, life, and habits of the people as portrayed in their native lore, I have made these translations, which, while they are so chosen as to cover various phases of life, are not to be considered as especially selected. I also wished to have some means of answering the constant inquiries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concerning Korean life and characteristics.

Allen, op.cit., 3쪽.

을 담지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야만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서술은 완전히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은 아니다. 이런 태도 하에서 한국인의 삶의 국면이란 그 고유성을 가지기에 유의미하지만 그 고유성을 서양-동양의 이항대립과 연결하여 야만-비아만으로 구분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설화 원천보다는 다소 정제된 소설 원천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태도와 연관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이처럼 개별의 민족들이 개별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야기가 삶의 양상을 재현해 낼 수 있다고 믿었기에 비교적 널리 회자되는 판소리 소설에서 한국의 ‘대표적’ 이야기들을 선택하고자 했을 것이다. 실제로 알렌의 목록은 가장 많이 선택되는 〈토끼전〉, 〈심청전〉, 〈홍부전〉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대표성을 가지는 한국의 이야기들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본을 토대로 요약적으로 다 시쓰기 한 것이 이 텍스트의 특징이다.

알렌의 텍스트가 대부분 경판본 소설을 참조했다는 논의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소설 전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은 아니다.⁴⁵⁾ 알렌은 소설적 개작 대신 이야기들을 설화적으로 기술했는데 이것은 (한국) 소설에 대한 장르적인 이해나 구별 없이 이를 일종의 고전서사로 인식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혹은 반대로 구술성을 어느만큼 가지고 있던 당시의 소설들을 큰 범위에서의 구술서사로서 이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알렌의 텍스트를, 이를 재번역한 아르노스의 텍스트와 비교해 보면 조금

45) 알렌 본은 비교적 선행 연구가 많은 본 중 하나이다. 이상현·이진숙·장정아는 알렌의 홍부전이 경판본을 번역한 것으로 보이지만 축약 및 번개가 적지 않아 이를 참조저본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최지지는 알렌의 〈토끼전〉이 전반적으로 경판본과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서혜은은 알렌이 대부분 경판본을 대상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지만 〈토끼전〉은 경판본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상반된 논의들이 있지만, 알렌의 설화집이 경판본과 연결고리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이상현·이진숙·장정아(2015), 앞의 논문, 367쪽; 최지지(2017), 앞의 논문, 424~28쪽; 서혜은(2022), 앞의 논문, 102~104쪽.

더 흥미롭다. 알렌과 아르노스가 기술한 내용은 거의 흡사하고 일부를 수정한 흔적만 확인되는데, 서로 다른 것은 목차이다. 제목을 순차적으로 묶어 전체의 흐름을 읽으면 각각의 설화집은 조금 다른 성격을 드러낸다. 알렌의 구성은 견우와 직녀까지를 환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즉, 환상담과 일반담으로 나뉘어 구성되는 것이다. 반면 아르노스의 구성은 개와 고양이가 원수가 된 이유까지는 동물담, 그 이후는 인물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동물담과 인물담으로 나뉘어 소재적으로 분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알렌이 기술한 제목에서 앞부분은 보편적인 제목이고, 뒷부분이 알렌이 해석한 일종의 요약적 키워드이다. 제목의 키워드를 통해 이야기의 해석이 다소간 달라진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직녀와 견우를 애정담으로 이해한 것은 공통적이지만, 알렌은 그 시련에, 아르노스는 그 신화성에 주목했다. 홍길동 역시 알렌은 학대받은 소년으로 개인적 고난에 집중했다면 아르노스는 사회적 차별을 들어 제목을 기술했다.⁴⁶⁾ 그러므로 알렌의 설화집은 소설의 설화적 다시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형, 그 중에서도 외부적 시선을 가진 저자에 의해 나타나는 변형을 포착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설화의 재번역이라는 관점에서는 가린의 설화집과 함께 묶일 수도 있다.

번호	알렌 목차	아르노스 목차
1	토끼, 다른 전설들-새와 동물의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2	마법에 걸린 술향아리-고양이와 개가 왜 사이가 나빠졌는지에 대해	홍부와 놀부, 제비왕의 보답
3	직녀와 견우-천상의 연인들의 시련	마법의 술병 혹은 개와 고양이가 원수가 된 이유
4	홍부와 놀부-제비왕의 보은	절의 기생 춘향이
5	춘향-신실한 기생 아내	직녀와 견우(별들의 사랑)

46) 이상현은 알렌이 적서 차별의 부당함에 학대받은 홍길동을 통해 일종의 모험담을 기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상현(2019), 앞의 논문, 172쪽.

6	심청-효심이 깊은 딸	효녀 심청
7	홍길동-학대받은 소년의 모험	홍길동, 자신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한 소년의 이야기

4) 한국 민담을 중심으로 한 설화 집성: 리델의 『한어문전 Grammaire Coréenne』(1881)』과 서영해의 『거울, 불행의 원인Miroir, Cause de Malheur!』(1934)

두 텍스트는 프랑스어로 기술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지만 민담을 중심으로 한 설화 집성이라는 공통점도 가진다. 리델⁴⁷⁾은 교재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22개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1-5는 앞쪽에 실려 있고 6-22는 뒤쪽에 거꾸로 수록되어 있어서 다른 목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순서가 다를 뿐 22개의 이야기 모두 설화이다. 대부분 민담 계열의 이야기이며, 길이가 크게 길지 않다. 이후에 살펴볼 서영해의 책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민담류 원천을 선택하므로, 앞서의 영어 기술 설화들과는 달리 소설 기반 이야기들이 없고 민담류의 이야기들만을 기술하고 있다. 설화와 그밖의 고전서사들을 구분하는 리델의 이해가 어느정도 선행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번호	제목	번호	제목
1	불타는 담배 Tabac calorifère	12	명민한 원님 아들 덕에 죽음을 피한 종의 주인 양반 Un maitre desclaves delivre de la mort par la sagacité d'un enfant
2	성실하고 재미있는 호반 Un archer industriel et plaisant	13	누구의 닭인가? À qui la poule
3	구두쇠의 실수 Avarice tropée	14	필목 한필은 누구의 것인가? À qui la pièce de toile

47) 리델은 파리 외방전교회 입회후 조선으로 잠입, 1869년 조선교구 제6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포교활동을 했으나 투옥후 석방, 추방되었다. 만주에 머물며 한어문전과 한불자전을 출간하였다.

리델, 펠릭스 클레르, 유소연 역, 『나의 서울 감옥생활 1878』, 살림, 2013. 1~248쪽.

4	소도둑Le voleur d'un bœuf	15	갑자기 출세한 이야기Histoire d'un parvenu
5	영리한 젊은이 Un jeune homme intelligent	16	개의 아들Fils de chien
6	코 이야기Histoire d'un nez	17	당나귀 알 또는 나귀 새끼가 된 토끼 Un oeuf d'âne ou un lapin devenu anon
7	왕의 배려심Trait de sollicitude royale	18	거울의 놀라운 효과 Prodigieux effets d'un miroir
8	왕의 또다른 배려 Un autre trait de sollicitude royale	19	세가지 소원Les trois souhaits
9	도깨비와의 내기Un pari decide par le lutin	20	구색이 맞지 않는 결혼 Un mariage mal assorti
10	신전을 맹신하는 이의 대혼란 Une monomanie spiritiste confondue	21	운 좋은 움 환자Un galeux fortuné
11	빼앗긴 족보Noblesse usurpee	22	산 중에 사는 사람 이야기 Épisode d'un montagnard

서영해의 설화집은 전체 연구대상 중 유일하게 한국어 화자가 프랑스로 기술한 것으로 역시 유일하게 모국어 내용→비모국어 기술의 방향성을 가진다. 그렇기에 이야기의 원천이 되는 한국 설화에 대한 정격의 이해가 선행된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제목		제목
1	거울, 불행의 원인Miroir, Cause de Malheur!	19	채두봉Tchai du-Bon
2	윤회 이야기Yun-Whai	20	우림Oulin
3	심청Sim-Tchum	21	혹보Hoc-Bo
4	홍련Nénuphar-Rouge	22	류진Lieu-Jin
5	소중한 독약Poison précieux	23	치약Tchi-Ac
6	절개없는 여자Femme infidèle	24	토끼의 간Le foie du lapin
7	초상 치른 고양이Le chat en deuil	25	착한 바보, 마십Maship, la bonne bete
8	기발한 거짓말Un ingénieux mensonge	26	개구쟁이 꼬마L'enfant Polisson
9	상가승무노인곡Sanga-Singmou-Loïnkoc	27	두꺼비의 보은 La reconnaissance d'un crapaud
10	수숫대가 빨간 이유Les taches du sorgho	28	이돌이Li Dory
11	김기수Kim kisou	29	아이 눈물의 위력 La puissance des larmes d'enfant

12	홍부놀부Hunghou-Norbou	30	아미타불A-MI-Ta-Boul
13	천안 삼거리의 능수버들Les saules pleurers du carrefour Tchun-Ansan-Gry	31	비극적인 수수께끼Une énigme tragique
14	마법의 구슬La bille magique	32	석상의 기억Une statue mémorable
15	잃어버린(도둑맞은) 종이를 어떻게 찾았을까 Comment on trouve les papiers perdus (volés)	33	비밀스러운 도지사Un préfet mystérieux
16	기적의 종La cloche miraculeuse	34	뛰어난 아이L'enfant terrible
17	여우와 호랑이Le renard et le tigre	35	한국의 전설Une légende coréenne
18	기이한 판결Un curieux jugement		

따라서 리텔과 서영해의 두 설화집은 근현대의 설화 집성의 개념과 가장 근접해 있다. 이야기 선택에 있어서도 공통점을 보이는데, 〈거울, 불행의 원인〉, 〈빼앗긴 종이는 누가 가져갔을까〉, 〈상가승무투인곡〉과 같은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선택된다. 이는 보편적으로 외국어 설화집에서 선택되는 교집합과는 조금 다르다. 이처럼 구성적, 기술적 유사성과 이야기 선택의 교집합 등을 토대로, 서영해가 리텔의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지는 않았어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도 있겠다.⁴⁸⁾ 그러나 편찬의 목적은 상반된다. 리텔의 서문은 기본적으로 이 저서가 한국어 학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

우리는 유용한 것에 즐거운 것을 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때로는, 왕좌의 계단을 내려와 남몰래 불행을 덜어주려 하는 왕자의 형상을 통해, 그러한 미덕이 감탄을 자아낸다. 때로는,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거나 속이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동양의 상상력은 우리를 여기,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로, 저기, 오래된 귀신 불은 집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요정의 마법이나 혹은 도깨비의 거친 장난 등을 목격한다. 이 이야기들과 같은

48) 이것을 프랑스어 텍스트의 공통점, 혹은 프랑스어 독자들의 취향에 맞는 선택이라 환원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적다.

장르의 다른 이야기들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민족의 관습과 제도를 따르는, 가정·사회 혹은 정치적인 생활에 관해 신기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세부 묘사들이 뒤섞인 것인데, 흥미로운 동시에 교훈적인 학습을 하도록 기여한다. 교본과 그 연습하는 법을 알 수 있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⁴⁹⁾

따라서 어떤 텍스트가 수록되었든 그것은 한국어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학습을 의미하는 유용 혹은 실용과 같은 개념어과 이야기를 표상하는 즐거움, 흥미 등의 개념어가 대립된다. 이야기 역시 대화나 서술 양상을 보여주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사실 어학이란 결국 문화의 이해 혹은 지역의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기에, 리델에게 한국의 이야기들을 어학적 대상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이해를 위한 흥미로운 예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변개된 이야기들은 저자의 해석을 드러내다기보다 언어 학습을 위한 가장 적절한 형태에 가깝다. 선택된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소화 혹은 우화의 경향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잘 드러내기도 한다. 반면, 서영해의 텍스트는 일제 강점기에 파리에서 망명정부와 한국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던 서영해가 한국의 존재와 독자성을 알리려는 목적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49) nous n'avons rien négligé pour joindre l'agréable à l'utile. Tantôt la vertu, sous les traits d'un prince qui descend les marches du trône et va soulager incognito l'infortune, s'impose à notre admiration; tantôt un jeu de mots nous montre comment on fait des heureux ou des dupes. L'imagination orientale nous transporte, ici, sur des sommets inaccessibles, là, dans l'intérieur d'un antique manoir hanté par les esprits; et nous fait assister au spectacle: d'un charme féérique ou d'une grossière malice du lutin. Ces récits et autres contes du même genre, entremêlés de détails qui fournissent des renseignements curieux sur la vie d'omestique, sociale ou politique, sur les mœurs et les institutions d'un peuple encore peu connu, contribuent à rendre l'étude à la fois attrayante et instructive. Nous pensons qu'on peut tirer un grand parti de ces exercices, si l'on sait en user avec méthode.

Ridel, op.cit., vij쪽.

이 책은 내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수많은 한국 설화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어느만큼은 환상적인 방식으로 들어봤을 이야기들이다. 어린 시절의 이러한 기억을 끌어내어 이 설화집을 구성한 것이다. “구성”이라고 말한 것은 이야기들이 (기존) 텍스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특정) 텍스트를 따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문헌적으로 전승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할머니께 구술로 들어 알게 된 것이다. 어떤 이야기들은 매우 열정적인 달변가이자 용감한 농부인 삼촌에게서 듣기도 했고, 전날에 들려준 이야기를 반복하라고 시키는 매우 엄격해보이는 학교 선생님께 듣기도 했다. 특히, 정말로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수많은 학식있는 선비 ‘방랑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저녁에 팔도를 유람할 때였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채에 항상 머무르던 선비들로부터였다. 물론 이 설화집에 실린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한국 설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미리 알지 못했기에 더 잘할 수 없었음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다.⁵⁰⁾

흥미로운 것은 서영해가 설화에는 원본이 없으며 이것은 구성된 설화집

50) Le présent volume ne représente en somme qu'une infime partie de ces innombrables contes coréens que j'ai entendus dans mon enfance que tout Coréen, sans doute, doit avoir entendu d'une façon plus ou moins fantaisiste. C'est en fouillant les souvenirs lointains de ma tendre enfance, en effet, que j'ai composé le présent recueil. Je dis bien « composé », car je ne me suis servi d'aucun texte, pour la bonne raison qu'ils n'en ont point. Cependant quelques uns d'entre eux ont une tradition écrite. Mais ceux-là mêmes, je les tiens oralement de ma grand' mère. Pour les autres, j'en tiens de mon oncle, brave paysan à la verve si fouguese, de mon maître d'école aux traits si sévères qui nous faisait souvent répéter son histoire de la veille. Mais c'est surtout de ces nobles « vagabonds » érudits qui sont nombreux, au soir de leur vie, à parcourir le pays et dont la présence dans le salon de mon père était continuelle, que j'ai entendu des histoires captivantes. Certes, je n'ignore pas qu'il y a une foule de contes coréens qui sont beaucoup plus intéressants que ceux du présent recueil, mais faute de les avoir connus je ne puis que regretter de ne pouvoir faire mieux.

서영해(1977), 앞의 책, 9쪽.

이라 명시한 점이다. 이미 채록과 문헌의 수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고 구술이라는 개념에 대한 독립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구술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급이기도 하며, 평민과 양반, 문헌과 구술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구술집단이 전승하는 이야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편이다.

따라서 이 두 텍스트는 설화 쓰기에서는 다소 구별되는 태도를 보인다. 서영해 설화집의 제목이자 첫 번째 이야기인 〈거울, 불행의 원인〉과 리텔의 〈거울의 놀라운 효과〉는 모두 부처송경 설화이다. 서영해의 설화가 조금 더 길고 묘사적이며 리텔의 설화는 훨씬 축약적이다. 서영해의 설화에서는 부인이 참빗을 부탁하기 위해 반달인 달의 모양을 상기하라고 당부하지만, 남편이 물건을 살때는 보름달이어서 결국 거울을 사오게 된 부분이 잘 기술되어 있다. 반면 리텔의 설화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된다. 또한 거울의 원리에 놀라면서 끝맺는 서영해의 이야기와 달리 리텔에서는 결국 동네 사람 중 하나가 거울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야기를 소화(리텔)로 본 것과 새로운 문물에 대한 놀라움과 호기심(서영해)으로 해석한 태도가 다른데, 물론 이는 저자의 텍스트 이해에도 기반할 것이다. 그 목적과 방향성을 차치하더라도 모든 외국어 기술 설화집의 저자를 통틀어 한국 설화를 가장 잘 이해할 서영해와 외국어 어학서를 쓴 리텔의 한국설화 해석의 차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두 설화집은 다시쓰기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구별된다.

- 5) 한국설화의 동화적 변주: 그리피스의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그리고 다른 한국설화 The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1911)와 헐버트의 『마법사 엄지의 한국 민담 Omjee The Wizard-Korean Folk Stories』(1925)

헐버트와 그리피스의 텍스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설화보다는 그 영미

동화적 개작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⁵¹⁾ 한국의 이야기를 소개한다기 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을 토대로 동화를 쓰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지만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일부 일본 동화 개작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한국 설화의 구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적었던 번역본이기도 하다.⁵²⁾ 또한 이 두 동화집은 개작의 정도나 목표는 유사하지만 서로 상반된 정체성을 가진 저자가 기술한 것으로 구성상의 공통점이 크지 않다. 그리피스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동화 모음집의 구조를 따른다.

번호	제목	번호	제목
1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The Unmannerly Tiger	11	도깨비의 동물, 고양이와 강아지 Tokgabi's menagerie, cats and dogs
2	도깨비와 그 장난 Tokgabi and his pranks	12	불을 먹는 거대한 석상 The great stone fire eater
3	동명왕과 어별교(魚鼈橋) East Light and the bridge of fishes	13	아기돼지 언니와 거만한 여동생 Pigling and her proud sister
4	단군왕자, 한국의 아버지 Prince Sandalwood, the father of Korea	14	몸이 긴 신사와 천개의 발을 가진 부인 Sir one long body and Madame thousand feet
5	토끼의 눈 The rabbit's eyes	15	새가 만든 하늘의 다리 The sky bridge of birds
6	상투와 도자기 모자 Topknots and crockery hats	16	개구리 남편 A frog for a husband

51) 헐버트와 그리피스의 동화집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황인순, 「헐버트와 그리피스의 한국설화 개작 연구: 동화집 『마법사 엄지, 한국 전래동화』와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그리고 다른 한국설화』를 대상으로, 『人文學研究』 37,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85~109쪽.

52) 헐버트는 서문에서 “이 책은 한국의 고유한 이야기들의 맛을 보존하고 이를 여섯 살에서 열세 살 아이들에게 알맞은 언어로 옮기는 시도”(An attempt has been made here to preserve the flavor of the original Korean stories and put them in language well within reach of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six and thirteen)라고 기술한다.

Hulbert(2000), 앞의 책, 5쪽.

7	재채기하는 거대한 돌미륵 The sneezing colossus	17	종소리 The voice of the bell
8	두더지 각시의 신랑 A bridegroom for Miss Mole	18	참새의 왕 The king of the sparrows
9	흰수염 영감과 토끼 선생 Old white whiskers and Mr. Bunny	19	나무꾼과 산신령들 The woodman and the mountain fairies
10	매화, 도화, (가시)장미 Peach-blossom, plum-blossom, and cinnamon rose		

앞선 외국어 설화집들이 대부분 한국설화라는 총체적 의미를 가진 제목들을 차용하는 반면, 대표적인 한국 설화를 제목으로 하고 그 이야기를 가장 첫 번째로 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제목을 쓴 것은 유일하게 서영해의 설화집이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구해준 사람을 잡아먹으려 한 배운 망덕한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어지는 이야기들 역시 대부분 동물담에 속한다. 그 우화적 속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동화로 개작한 것이다. 반면 헐버트의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으로 목차를 통해서도 그 설화 원천을 알기가 어렵다.⁵³⁾ 반면 엄지라는 인물이 이야기를 구술하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가지는 구술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동물담이므로 그 리피스의 선택과 어느정도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번호	제목
1	석달이는 누구인가? Who Sokyary was
2	석달이가 어떻게 언덕으로 올라갔는지 How Sokyary went to the hills
3	석달이가 엄지를 어떻게 찾았는지 How Sokyary found Omjee

53) 특히 헐버트의 구성은 다른 설화집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크다. 김성철은 헐버트 본의 전체적인 구성이 미국남부 설화를 엮은 Uncle Remus: His Songs and His Sayings(1908)와 유사하며 이러한 구성은 한국의 이야기를 미국에 소개한다는 목적을 변질시킨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김성철(2015), 앞의 논문, 261쪽.

4	용왕의 딸 The Sea-king's daughter
5	엄지와 소년들 Omjee and the boys
6	토끼가 공주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How Mr. Rabbit cured the princess
7	아이들이 엄지를 어떻게 도왔는지 How The boys helped Omjee
8	토끼 선생과 진주들 Mr. Rabbit and the Pearls
9	토끼 로니가 곰 브루니를 어떻게 구했는지 How Ronny rabbit saved Broony bear
10	호랑이 클로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How Clawsy tiger made a mistake
11	멧돼지 터스키가 어떻게 죽었는지 How Tusky boar was killed
12	여우 레니가 호랑이 클로시를 어떻게 없앴는지 How Renny fox finish clawsy tiger
13	여우 레니가 왜 슬픔에 빠지게 되었는지 How Renny fox came to griff
14	친절한 도깨비들 The Friendly Tokgabbie
15	형제와 새들 The Brothers and the Bird
16	참새와 파리 The Sparrows and the Flies
17	고슴도치 스파이니가 어떻게 용에게 먹이를 주었는지 How Spiney hedgehog tried to feed the dragon

실제로 헐버트와 그리피스스는 모두 한국학 연구자이지만, 전자는 한국의 독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학에 조예가 깊었다고 알려진 반면 후자는 상대적으로 일본학의 방계로서 한국학을 다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대비가 동화집 기술에 일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둘 모두 동화적 결말로의 개작, 한국설화와 서구설화의 습합, 한국설화의 파편적 사용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⁵⁴⁾ 반면 그 세부적 전개에는 차이를 보이는데, “동화가 지향하는 교훈성과 도덕성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다면 헐버트의 텍스트가 보다 권선징악적이며 그리피스스는 상대적으로 중재적”인 편이다. 이것은 “어쩌면 권선징악을 지향하던 저자의 바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관계”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다.⁵⁵⁾ 이처럼 기술 태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두 텍스트는 설화의

54) 황인순, 「헐버트와 그리피스의 한국설화 개작 연구: 동화집 『마법사 엄지, 한국 전래 동화』와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그리고 다른 한국설화』를 대상으로, 『人文學研究』 37,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97~105쪽.

동화적 변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 동화집의 개작, 한국어 동화집의 개작 등과 상호 연구될 수 있으며, 1900년대 중반 이후의 출판작에서 발견되는 한국설화의 영문 동화화 경향의 통시적 맥락에서 연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외국어 기술 설화 속 이야기 세계 구현: 〈토끼전〉의 다시쓰기

대부분의 번역이 문화적 번역의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환기할 때, 다른 언어로 기술된 설화들은 한국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다시쓰기이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설화집의 특징들이 어떻게 다시쓰기로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많은 설화집에서 선택한 이야기는 〈토끼전〉으로, 판소리와 소설 모두로 연행되었고 19세기를 전후하여 그 연행이 잦았기에 선택의 빈도가 높다.⁵⁵⁾ 또한 전반적으로 판소리계 소설과 동물담의 선택 빈도가 높은 편인데, 〈토끼전〉은 그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토끼전〉과 관련한 전통적 해석 중 하나는 토끼를 서민적 형상으로 보고 이와 대조되는 관점에서 바다 세계의 용왕과 자리를 봉건적 형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⁵⁷⁾ 다시쓰기한 〈토끼전〉에서도 어느만큼 전형적인 이구

55) 힐버트의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다. 반면 그리피스의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부상을 크게 입었지만 살아남는다. 물론 그리피스의 이야기에 서도 호랑이가 결국 ‘한 사냥꾼의 함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결말을 맞지만 해당 사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황인순(2022), 위의 논문, 99쪽.

56) 모든 설화집에서 공통적으로 선택한 텍스트는 없고, 〈토끼전〉이 수록된 것은 가린, 알렌, 그리피스, 힐버트, 서영혜 본이다. 〈토끼전〉이 누락된 개일과 리텔의 설화집은, 3장에서 그 기술에 관해 보다 자세히 분석했다.

57) 정출현, 「봉건국가의 해체와 「토끼전」의 결말 구조」, 『고전문학연구』 13, 한국고전문

조는 대부분 유사하지만 해석의 폭은 조금씩 달라진다. 토끼와 자라는 여전히 대립 구도이며 토끼가 표상하는 육지 세계와 자라가 표상하는 바다 세계의 대립 역시 동일하다.⁵⁸⁾ 그런데 외국어 기술 본에서는 바다와 육지가 봉건과 서민으로 대립되기보다 어떠한 이상향과 현실세계처럼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토끼를 바다세계로 이끌려는 자라의 말과 그 과정을 살피는 것은 지향세계의 면모를 추측하도록 한다. 바다 혹은 용궁에 관한 자라의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토끼의 바다이동은 그 자체로 죽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⁵⁹⁾ 그러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자라는 토끼에게 바다 세계에 대한 판타지를 과장하는데 이것은 토끼가 표상하는 육지와 텍스트 밖의 일상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문학 텍스트이면서 역사문화적 콘텍스트와 상호조응하는 문화적 담론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에 주목한다면 그 결핍은 1900년대 한국이라는 콘텍스트와 유기적 관계를 가진다. 또한 저자가 이해한 한국적 이야기에 대한 관념과 조응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이를 살피기 위해 토끼를 띄어내는 자라의 말이 기술된 부분들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 〈토끼전〉에서 자라⁶⁰⁾가 토끼에게 용궁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보편적으로 용궁의 아름다움

학회, 1998, 153~185쪽; 『《토끼전》의 작품구조와 인물형상 - 가람본 〈별도가(鼈兔歌)〉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18(1), 일지사, 1992, 1194~1229쪽; 최광석, 「〈토끼전〉의 공간대립의 양상과 의미, 『어문학』 73, 한국어문학회, 2001, 471~491쪽.

58) 이와 관련해 최광석은 〈토끼전〉에서의 공간 대립이 수궁계와 육지계 뿐 아니라 천상계와 인간계를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외국어로 기술된 〈토끼전〉은 소설적으로 기술된 장편의 성격이 사라지고 비교적 길이가 짧은 형태로 변형된다. 따라서 이때의 대립은 바다와 육지의 구도로 축약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최광석(2001), 위의 논문, 474쪽.

59) 〈토끼전〉을 용왕의 요청으로 자라가 토끼를 데려오고자 함, 자라가 토끼를 데려오자 뽀, 토끼가 자라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됨, 토끼가 바다 세계를 탈출함의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면 결국 이것은 자라가 표상하는 바다 세계로 육지의 토끼가 갈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

60) 한국어본에서는 자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어 기술에서는 주로 '거북'으로

과 안락함, 평온함 등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래에서도 그러한 양상이 드러난다.

선수도 인간 경치를 자랑하거니와 나도 우리 농공 승경을 잠간 자랑홍 거시니 지시 드러보라 하고 인하여 말할 너되 너도 슈궁이란 곳은 집을 지오되 호박 듀초의 산호 기둥이며 밀화 들씨의 청강석 기와를 이허스며 슈정밭을 드리오고 빅옥 난간을 순금으로 꾸며시며 오식 구름으로 산도 무으며 물식을 희롱하고 각식 풍뉴로 듀야 연낙하고 칠보 단장한 시녀들이 뉴리잔의 호박대를 밧쳐 천 일듀를 권홀 적의 그 흥미 엇더하며 으춤의 안기를 타고 저녁의는 구름을 잡으르고 스희팔황을 슈유간의 왕니하며 옥저를 빗기 부러 공둥으로 임의 기리하니 일신의 맑은 흥치를 엇지 다 측량하리오 선성이 요란한 세계의 녹녹한 풍경을 자랑하니 그 생각이 적도다 만일 풍운이 스면을 두루며 급한 소년이 함박으로 담으밧드시 오며 텃동번기 진동홀 제 그디의 즈근 몸을 피하여 바회 틈의 의지하였드가 그 산이 문허지면 그디의 즈근 몸이 갈니 되리라 하니 툃기 이 말 듯고 놀는 같오디 그런 소스흔 말오란 두 번 말는 즈리 또 닐오디 삼동극한의 빅설이 건곤의 가득하여 굴형도 업슬 제 그디 바회 틈의 겨우 의지하여 처즈를 엇지 구하며 그던들 괴갈을 엇지 면하리오 동삼삭이 지는 후 음곡의 춘기 발양홀 제 돌구멍 찬 자리의 이러느셔 시원한 디를 보려하고 산상으로 밧비 갈제 산양 포슈의 활기O총이 머리 우회로 너머갈 제 일신 간장이 엇더하며 미 버든 슈할치는 산양기를 모라 스면으로 다닐 적의 그디 믿음 엇더하며 평지로 내려가면 목동들은 시 낮출 엇게 우회 들레메고 으오성 소리 지르고 에워드러올 제 그디 엽는 쏘리 샷히 끼고 저근 눈을 브롭 쓰고 즈른 발을 즈루즈루 놀너 천방지방 갖버지며 엇디지며 드라날 제 가슴의 불이 나고 정신으득홀 적 어니 결를의 화초를 구경하며 어니 코오로 향취를 맛트리오 그디는 생각하여 나를 사라 농공의 드러가면 선경도 구경하고 텃도라도 어디 먹고 천일쥬를 장취하며 미인을 희롱하여 평생을 환낙홀거시오 또한 부귀쌍전하리니 지삼 생각하라 하니 툃기 귀를 기우리⁶¹⁾

번역된다.

번역본 역시 바다 세계의 아름다움과 안온함을 강조한다. 다만 그 뉘앙스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가린의 〈토끼전〉은 〈토끼〉라는 제목이지만 보편적 변이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토끼가 바다 세계를 탈출하는 것이 〈토끼전〉의 보편 구조 중 하나라면, 대부분의 변이형에서는 토끼가 자라의 거짓말에 속아 용궁으로 갔다가 탈출하는 서사단락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전승에서는 토끼가 아예 바다로 가지 않는다. 거북은 토끼를 펴는 대신, 동물의 왕인 호랑이를 찾아가서 토끼를 찾아주기를 청하고 토끼는 호랑이의 명으로 거북을 따라가다가 사실을 알고 도망친다. 이 전승에서는 따라서 거북이 토끼에게 바다 세계의 이점을 설파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장 유표적 변이는 토끼가 흥건적이 되는 것이다. 토끼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거북이를 속이고 도망을 가지만 호랑이가 다시 자신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흥건적이 된 후, 용왕의 죽음을 듣고서야 다시 육지로 돌아온다. 이러한 구도는, 바다 세계가 가진 이상성이 어느만큼은 표현되곤 하는 다른 변이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 전승에서 바다 세계의 용왕과 육지 세계의 호랑이왕이 동일한 역할을 하며 용왕의 명을 따르는 거북이와 호랑이왕의 명을 따르는 토끼의 구도 역시 동일하다. 그러므로 바다와 육지는 동일한 위계를 가진 유사한 성격의 공간이다. 바다 세계는 육지 세계와 동일하게 냉정한 세계이므로 입바른 말에 속아서라도 토끼의 탈출구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육지 세계의 토끼는 다른 세계를 꿈꾸며 바다로 가는 대신, 자신을 죽을 자리로 내몬 호랑이를 피해 흥건적이 된다. 다른 어떤 변이보다도 현실에 대해 냉랭한 시각을 드러내는 이 다시쓰기는 서문에서 근대의 도래와 조선의 소멸이 불가피함을 기술하며 현실의 냉혹함을 피력하는 저자의 시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61) 〈토끼전〉의 이본은 다양하지만 경관전 토생전을 예로 들었다.

김진영·김현주의 편저, 『토끼전 전집』 2, 13쪽.

반면 알렌과 그리피스의 <토끼전>은 두 전승이 서로 유사한데, 전자는 <토끼, 다른 전설들-새와 동물의 이야기>라는 제목이며 후자의 제목은 <토끼의 눈>이다.⁶²⁾ 토끼의 간 대신 눈이라는 설정을 사용한 것, 전체적인 서사단락의 선정과 흐름, 기술의 태도까지 유사하며 용왕이 물고기 왕으로 표현된다는 것도 같다. 한국 설화에서 용왕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신이적 표현으로 인간이상의 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고기의 왕이라고 표현했을 때 용왕의 세계가 구현하는 신성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진다. 또한 일종의 동물담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다. 용왕이라는 개념이 낯설고, 지나친 판타지가 비합리로 여겨질 수 있어 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신이성을 배제한 단순한 유비로도 읽혀질 수 있다.

알렌 본에서 거북이 바다 세계에 대해 “무엇보다도, 물은 너를 항상 안아 끌어올려주지. 그래서 너는 노력하지 않아도 어디든 갈 수 있어”⁶³⁾ 라 언급한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지상의 토끼를 속인 것이 바다 세계의 거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바다 세계는 부정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빼면 세계의 속성에 대한 언급은 딱히 거짓은 아니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정말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소중한 눈을 지불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다. 대신 그 세계에서는 애쓰지 않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즉, 바다 세계는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가능

62) 케일과 그리피스의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토끼전>만큼은 명확한 영향관계에 있다.

63) “No, indeed! I have had enough for once. I prefer the water. Why, you should see the magnificent sights down there. There are beautiful green forests of waving trees, mountains of cool stones, valleys and caves, great open plains made beautiful by companies of brightly robed fi-I shes, royal processions from our palaces, and, best of all, the water bears you up, and you go everywhere without exertion. No, let me return, you have nothing on this dry, hot earth worth seeing.”(후략)

Allen, op.cit., 36쪽.

성이 있는 세계이나, 토끼에게는 눈을 내어줄만큼 너무 많은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세계이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아주 많은 희생을 감수한다면 도달은 할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기도 하다. 알렌은 서두에서 한국을 단순히 야만적인 민족으로 볼 수 없다고 했으나 근대나 혹은 한국의 근대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토끼전>의 재현은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시각을 함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앞서 말한 가린의 본과 알렌의 본 모두 가장 첫 이야기로 수록한 것이 <토끼전>으로, 조금 단적으로 말하면, 비극적 현실의 냉혹함 속에서 꺾박받는 토끼와, 꿈꾸는 세계로 바로 갈 수는 없지만 이상적 세계를 바라는 토끼의 재현은 그 두 시선의 간극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피스 본은 알렌의 본과 유사하나 거북이 강조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다. 알렌이 가능성과 자유로움을 강조하며 아울러 바다 세계의 풍요를 이야기했다면, 그리피스에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바다 세계의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이 강조된다. “지상의 풍경은 아름답지만 바다 세계의 보석과 나무, 꽃, 달콤한 향기와 아름다운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⁶⁴⁾고 말한다. 그렇게 본다면, 바다 세계라고 해서 육지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과 가치가 있는 세계는 아닌 것이다. 다만, 조금더 풍요롭고 조금더 화려하며 안온하기에 지향하는 세계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도 지볼해야 하는 것이 눈이란 것이 흥미로운데,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세계에

64) "Oh, yes, Brother Bunny, this view of the landscape and country is all very beautiful, but it can't compare to the gems and jewels, trees and flowers, sweet odors and everything lovely down in the world under the sea." ...
Thereupon Dr. Turtle proceeded to tell of most wonderful mountains and valleys down on the floor of the deep sea, with every kind of rare water plants, red, orange-color, green, blue, white, with trees of gold and silver, besides flowers of every color and delightful perfume." You surprise me," said Brother Bunny, getting more interested.
 Griffis, W. E., op.cit., 32~33쪽.

서 눈이 없어 볼 수 없다면 그 세계의 가치는 훨씬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눈이 없어 희생을 감수한다고 해도 움직임의 자유로움이 여전히 존재할 알렌의 세계와는 조금 다르다. 상대적으로 조선 혹은 한국이라는 공간에 대해 가장 애정이 적었다고 할 수 있는 그리피스의 시각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

헐버트의 <토끼전>은 가장 확장된 변이이다. 직접 변용은 <용왕의 딸>이지만 <토끼가 공주를 어떻게 치료했는지>와 <토끼 선생과 진주들> 역시 크게 보면 <토끼전>의 전승이다. 전자가 <토끼전> 결말의 동화적 확장이 라면 후자는 <토끼전>의 후일담적 성격을 가진다. 토끼의 간 구하기가 실패로 끝난다면 결국 용왕의 딸을 살릴 수 없다. 앞선 이야기는 그 안타까움을 해결하려 저자가 찾은 나름의 해법처럼 보인다. 토끼의 간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꿀’이 치료제임을 알아내어 간 대신 꿀로 용왕의 딸을 구한다. 이어지는 뒷 이야기에서 토끼는 공주를 살려 그 상으로 진주를 받게 되는데 거북이 이를 직접 운반하며 자신의 과오를 갚는다. 저자는 딸의 병을 치료하려는 아버지의 마음과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이를 도우려는 거북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하며,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이야기에서도 토끼는 바다로 가고자 하는 이유로 ‘매의 괴롭힘’을 듣는다.⁶⁵⁾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한 존재들이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 안온하고 안전한 세계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끼 선생과 진주들>에서도

65) Mr. Rabbit put out his paw and felt the shell very timidly. "Well, well!" he said, "I think you are very lucky to have such a thick shell. I wish I had one. Then the hawks could not bother me so." "Hawks?" asked Dr. Tortoise. "What are they?" "Don't you know what hawks are? They are great birds that fly way up in the air, and when they see a rabbit, they pounce down pon him and carry him away in their claws and eat him up." Hulbert(2000), 앞의 책, 38쪽.

토끼는 여우의 습격을 받는다. 따라서 험버트에게, 실재하는 위험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바다에서도 간을 내놓으라는 위험에 다시 직면한 토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을 도와 일종의 보답을 받았다. 한국의 독립에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진 험버트가 동물담을 통해 위험과 위험이 실재하나 관용이 교차되는 세계를 적극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서영해의 <토끼전>은 <토끼의 간>이라는 제목이다. 간을 눈으로 바꾼 변이들이 하나 이상 있을만큼, 간을 가져간다는 설정이 외국인 저자들에게는 다소 낯설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인 저자인 서영해는 이를 그대로 제목으로 차용한다.⁶⁶⁾ 서영해의 용궁은 그 화려함이 강조되며 용왕이 물고기라는 설정은 가장 흐릿하고 용왕의 딸이 아픈 것으로 시작한다. 서영해 본에서 거북이 토끼를 설득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말 잘 물으셨습니다. 바닷 속 우리의 생활은 물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에서 선생들은 평온할 때가 없겠지요: 선생들을 사냥하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선생들을 해치려고만 하는 맹수때들이 득시글합니다. 또한 물에는 빈궁한 삶을 보내야만 하는 혹독한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다세계에서는 추위와 굶주림, 이런 것들은 모릅니다. 바닷 속 우리의 생활에서는 변함없는 하나의 계절만이 있습니다:봄. 어디에서나 선생은 향긋한 꽃과 함께 부드러운 풀과 잔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는 가난도 두려움도 모릅니다. 모두 풍요 속에 사는데 왜 가난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형제인데 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⁶⁷⁾

66) 물론 토의 간이라는 제목을 알고 있어 이를 차용했을 수도 있다.

67) Vous avez bien raison de me la demander. Notre vie sous-marine n'a rien de commun avec votre vie terrestre. Sur la terre vous n'êtes jamais tranquille : vous avez des hommes qui cherchent toujours à vous tuer et une foule d'autres animaux féroces qui ne vous veulent que du mal. N'est-ce pas vrai aussi qu'il y a sur la terre des mauvaises saisons où vous êtes obligé de mener une vie de misère : le froid, la faim, voilà ce que nous ne connaissons

육지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이며, 가난과 추위, 굶주림이 존재하는 혹독한 세계이다. 그러나 바다 세계는 실재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따뜻함만이 있는 세계이며, 모두가 형제로 공동체를 이루는 평화로운 세계이다. 단순히 물질적인 평온과 안정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지향과 가치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에서 홀로 식민지가 되어버린 한국의 이야기를 기술한 저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함축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00년대의 외국어 기술 설화집이 가지는 기술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 세계를 토대로 번역된 한국의 서로다른 면모를 살펴보았다. 저자들은 자신이 읽어낸 한국과 근대의 관계들을 기반으로 한국의 이야기들을 다시쓰기했다. 저자의 지향이 이야기에 완전히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설화집들은 단순히 외국어로 기술된 출판물이 아니라 한국문학을 대상으로 한 정격의 혹은 비정격의 이본으로서 기능하기도 하며, 설화 다시쓰기에 기반한 문학 텍스트로서 동시에 근대성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담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들이 중층적으로 겹쳐진 텍스트이기에, 그 개별의 면모는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게일의 설화집은 『천예록』의 번역 이본으로, 그리피스설화집은 지극히 동화적

pas chez nous. Cependant dans notre vie sous-marine, il n'y a qu'une saison éternelle : c'est le printemps. Partout vous trouverez l'herbe tendre et grasse avec des fleurs parfumées. On ignore chez nous la misère et la crainte, car enfin pourquoi la misère? quand tout le monde vit dans l'opulence; et pourquoi la crainte? quand on est tous frères!

서영해(1977), 앞의 책, 141~142쪽.

개작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그리피스와 헐버트의 설화집은 꽤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정체성이 유사하다고 해서 개작의 방향이 유사한 것도 아니며, 개별 텍스트의 통시적 관계가 항상 이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텍스트들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외국어 기술 설화집이라는 영역 안에서 몇가지 방법론에 입각하여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개별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구획되고, 그 구획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토대로 외국어 설화들이 한국 문학의 연구대상이다 그렇지 않다는 단적으로 답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한국 문학 연구의 어떠한 관점과 방법론 하에서 이들에 접근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또한 아직도 밝혀지지 않거나 발견되지 않은 한국 문학 연구의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했다. 한국 문학 연구 영역에서 혼종성과 착종성, 소수성을 가진 텍스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한국 문학 연구에서도 보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llen, H.N.M.D, *Korean Tales*, London: G.P. Putnam's Sons, 1889, 1~193쪽.
- Arnous, H.G, *Marchen Und Legenden Koreas*, Leipzig : Wilhelm Friedrich, 1893, 1~100쪽.
- Gale, James Scarth, *Korean Folk Tales: Imps, Ghosts, and Fairies*, London, New York : J.M. Dent & sons. E.P. Dutton, 1913, 1~288쪽.
- Griffis, William Elliot,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11, 1~155쪽.
- Hulbert, Homer B., *Omjee The wizard: Korean folk stories*, 근세 동아세아 서양어 자료총서 45, 경인문화사, 2000, 1~2639쪽.
- Ridel, Félix-Clair, *Grammaire Coréenne*, 역대한국문법대계 2-6, 탑출판사, 1977, 1~196쪽.
- So yong-hae, *Mirior, cause de malheur!*, 새문사, 1977, 1~214쪽.
- 김동욱·최상은 역, 『천예록』, 명문당, 2003, 1~452쪽.
- 김진영·김현주의 편저, 『토끼전 전집』 2, 박이정, 1998, 1~149쪽.
- 가린, 미하일로프스키, N.G. 안상훈 역, 『조선설화』, 한국학술정보, 2006, 1~262쪽.
- 리텔, 펠릭스 클레르, 유소연 역, 『나의 서울 감옥생활 1878』, 살림, 2013. 1~248쪽.
- 아르노스, H.G, 송재용·추태화 역, 『조선의 설화와 전설』, 제이앤씨, 2007, 1~284쪽.
- 헐버트, 호머, 이현표 역, 『마법사 엄지-한국 최초의 영어 교사 호머 헐버트가 들려주는 한국 옛날 이야기』, KORUS, 2011, 1~288쪽.
- 강재철, 「러시아 N.G. 가린의 개화기 한국설화자료의 수집과 채록방법 : 조사자와 제보자 및 후원자에 주안하여」, 『동아시아고대학』 18,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237~284쪽.
- 김성철, 「일제 강점기에 영역(英譯)된 한국 동화집 Tales told in Korea의 편찬 경위와 구성의 의미」, 『고전과 해석』 19, 고전한문학연구학회, 2015, 257~284쪽.
- 김은영, 「서양인이 읽은 조선 : 조불조약 체결(1886) 전 프랑스에서 생산된 출판물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99, 한국서양사학회, 2008, 201~237쪽.
- 김향, 「아침 프라이어(Achim Fryer) 연출 창극 〈수궁가(Mr. Rabbit and the

- Dragon King)》(2011)에서 구현되는 문화적 경계 공간과 생태학적 (oikos) 합리성-문화번역론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 국어국문학회, 2013, 375~418쪽.
- 박노자, 「착한 친성의 아이와 같은 저들」, 『대동문화연구』 56,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6, 157~163쪽.
- 백주희, 「J.S. Gale의 Korean Folk Tales 연구-任墜의 天倪錄 번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8, 1~86쪽.
- 서혜은, 「알렌의 경판본 소설의 변안 양상과 그 독자의식」, 『한국학논집』 8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101~146쪽.
- 신상필, 「파리의외방전교회가 남긴 동서양 문명교류의 흔적 - Grammaire Coreenne (1881) 소재 단형고전서사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349~380쪽.
- 신상필·이상현, 「게일의 『靑坡劇談』 英譯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335~374쪽.
- 안상훈, 「백두산 설화의 전승과 연행양상-가린-미하일로프스키의 조선 기행문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1, 중앙어문학회, 2015, 251~284쪽.
- 오윤선, 「근대초기 한국설화 영역자들의 번역태도 연구 : Allen, Griffis, Hulbert, Carpenter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3,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2, 205~231쪽.
- 오윤선, 「19세기말 20세기초 영문(英文) 한국설화의 자료적 가치 연구」, 『우리문학연구』 41, 우리문학회, 2014, 145~179쪽.
- 오윤선, 「영문 한국전래동화의 한국설화 다시쓰기 양상-〈콩쥐팍쥐 이야기〉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387~420쪽.
- 오지석, 「근대전환기 내한 선교사 저술 속에 나타난 한국인식: 험버트, 게일, 베어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45(12-2), 인문사회 21, 2021, 425~438쪽.
- 이상현, 「물혀진(심청전) 정전화의 계보-알렌(H. N. Allen), 호소이(細井肇), 게일(J. S. Gale)〈심청전〉번역본의 연대기」,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405~456쪽.
- 이상현, 「'학대 아동(An Abused Boy)'과 '폭도', 홍길동의 두 가지 형상과 〈홍길동전〉번역의 계보」, 『철학사상문화』 30,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9, 161~187쪽.
- 이상현, 「『홍길동전』의 영역본 연구」, 『한국연구』 1, 한국연구원, 2019, 53~81쪽.
- 이상현·이진숙·장정아, 「〈경판본 흥부전〉의 두 가지 번역지평 : 알렌, 쿠랑, 다

- 카하시, 게일의 〈홍부전〉 번역사례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7, 열상고전연구회, 2015, 357~412쪽.
- 이희수, 「1895~1898년 한국방문기를 통해서 본 러시아의 한국 인식」, 『사림』 35, 수선사학회, 2010, 85~112쪽.
- 조현설, 「근대 초기 유럽에 번역된 한국 설화에 표현된 민족 이미지 연구-한홍수의 〈한국의 열두 달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2,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139~171쪽.
- 전상욱, 「〈춘향전〉 초기 번역본의 변모 양상과 의미-내부와 외부의 시각 차이-」,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119~147쪽.
- 전성희, 「러시아에서 최초로 번역·출판된 『한국설화』의 성격과 특징」, 『한국민속학』 48, 한국민속학회, 2008, 261~297쪽.
- 정용수, 「『천예록』 이본자료들의 성격과 회수 문제」, 『한문학회』 7, 우리한문학회, 2002, 129~165쪽.
- 정출현, 「《토끼전》의 작품구조와 인물형상-가람본 〈별토가(鼯兎歌)〉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18(1), 일지사, 1992, 1194~1229쪽.
- 정출현, 「봉건국가의 해체와 「토끼전」의 결말 구조」, 『고전문학연구』 13, 한국고전문학회, 1998, 153~185쪽.
- 조용희, 「그리피스의 문학관과 한국 민담에 대한 이해」, 『비교문학』 50, 한국비교문학회, 2010, 79~120.
- 조희웅, 「한국설화학사기고 ; 서구어 자료(제1·2기)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5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97~131쪽.
- 조희웅, 「한국설화학사기고 ; 서구어 자료(제Ⅲ기)를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7, 어문학연구소, 1988, 67~86쪽.
- 최광석, 「〈토끼전〉의 공간대립의 양상과 의미」, 『어문학』 73, 한국어문학회, 2001, 471~491쪽.
- 최지희, 「알렌 『토끼전』 영역(英譯) 과정에서의 변개지점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421~454쪽.
- 최진실, 「결텍스트 분석을 통한 번역가의 번역원리 연구: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6-1,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8, 207~227쪽.
- 한지희·김효경·이혜은,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에 소장된 한국 고전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69, 한국서지학회, 2017, 307~325쪽.
- 홍순애, 「근대계몽기 외국인 여행서사의 표상체계와 문화상대주의 - 러시아

- 가린-미하일롭스키의 『한국, 만주, 랴오둥반도 기행』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4, 한민족문화학회, 2010, 107~137쪽.
- 황인순, 「서영해 설화집 『거울, 불행의 원인』의 서사적 특질 연구」, 『구비문학 연구』 5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321~360쪽.
- 황인순, 「1900년대 전후 외국어 설화집의 연구 방법론 구축」, 『리터러시 연구』 10(4),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9, 665~702쪽.
- 황인순, 「헨리엇와 그리피스와 한국설화 개작 연구: 동화집 『마법사 엄지, 한국 전래동화』와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그리고 다른 한국설화』를 대상으로」, 『人文學研究』 37,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85~109쪽.

ABSTRACT

A Study on the geography of Korean Folktales described in Foreign Languages in 1900s: Rewritten and Translated Korea

Hwang, In-soon

This study focuses on a collection of Korean tales written by foreign languages published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o analyze the dual aspects of translation and to examine the *translated Korea* embodied in the tales. When conducting oral literature research centered o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it is still a major problem to specify the scope and methodology. One of key feature of this period is the publication of collections in foreign languages other than Korean and Hanmun. This is a clear indication of the heterogeneity of the period, but it also proves the need for the finalization of the field and the diversification of methodologies. In this study, I will interpret these texts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iterary studies.

From a perspective distinct from that of Korean tales, foreign language tales are described in another language, and the concept of their description, or translation, must be examined. This can be seen as a process of dual translation, in which Korean tales described in foreign languages first undergo a semantic and discursive shift in which Korean texts are transformed into foreign languages, and at the same time, a process of universal transformation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orality itself. Based on this, the related foreign language tales can be chosen and categorized, which is not only a classification of texts but also a possibility of categorizing the research area.

Also, in this essay, translation encompasses the rewriting of tales. It is through the rewriting of tales that the intercommunication between Korean tales and the early 1900s context that surrounded them is revealed. Focusing on one of the most prolific tales in the collection, The

Rabbit and Turtle, I will examine how Korea has been translated through the story world.

Key Words

Folktales described in foreign languages, Dual Translation, Rewritten · Korean tales, Folktales described in English, Folktales described in french

논문투고일: 2023.04.11.
심사완료일: 2023.05.03.
게재확정일: 2023.05.04.